

LPGA투어 '신인상', 박성현 확정



‘슈퍼투키’ 박성현(24·KEB하나은행)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신인왕 수상을 확정하며 미국 진출 당시 목표 중 하나를 달성했다.

LPGA 사무국은 19일(한국시간) “박성현이 오늘 수학적으로 2017년 톨레스 올해의 신인상 수상자로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박성현(1413점)은 신인왕 포인트에서 2위인 앤젤 인(미국·615점)을 798점차로 따돌렸다. 이 점수차는 1996년 신인왕인

캐리 웹(1030점)과 1998년 신인왕 박세리(929점)에 이어 투어 사상 세 번째로 큰 점수차다.

이로써 박세리(1998년), 김미현(1999년), 한희원(2001년), 안시현(2004년), 이선화(2006년), 신지애(2009년), 서희경(2011년), 유소연(2012년), 김세영(2015년), 진인지(2016년)에 이어 한국선수로는 11번째 신인왕 수상자가 됐다.

박성현은 “올 시즌 목표 중 하나였던 신인왕에 올라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평생 한번 밖에 받

미국 진출 목표 하나 달성...한국선수 11번째 상금랭킹 1위로 가장 단기간 200만 달러 돌파

평균 타수 부문도 1위 · 올해의 선수도 3위 등

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특별하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더 나은 선수가 되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성현은 7월 메이저 대회인 US 여자 오픈에서 우승한 뒤 8월 캐나다 여자 오픈에서 2승째를 달성하며 2개국 내셔널 타이틀을 차지했다.

현재 세계랭킹 2위까지 도약하며 랭킹 1위 유소연(27)의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 두 차례 우승과 2차례 준우승을 제외하고도 4차례 톱10에 들었다.

시즌 상금 209만2623달러를 획득해 상금랭킹 1위에 올라 있는 박성현은 지난주 ‘KEB하나은행 챔피언십’에서 준우승하며 투어 사상 가장 단기간(19개 대회, 7개월 13일)에 상금 200만 달러를 돌파

했다.

평균 타수 부문 1위에도 올라 있는 박성현은 올해의 선수 부문 3위, CME글로벌 포인트 2위 등 주요 부문에서 타이틀 경쟁을 펼치고 있다.

신인왕을 확정된 박성현이 상금왕과 평균타수, 올해의 선수까지 석권하면 1979년 낸시 로페즈(미국) 이후 39년 만에 대업을 달성하게 된다.

박성현은 시즌 최종전인 CME그룹 투어 챔피언십이 열리는 오는 11월16일 ‘2017 톨레스 LPGA 어워드’ 때 신인상을 받게 된다.

한편, 박성현은 이번 주 대만에서 열리는 ‘스윙잉 스커츠 타이완 챔피언십’에서 시즌 3승과 함께 세계랭킹 1위에 도전한다.

뉴스

이승훈 “다시 한 번 시상대 서고파”

ISU 월드컵 1~4차 대회 출전권 획득... “평창서 멋진 모습 보일 것”

국내 스피드스케이팅 장거리 최강자인 이승훈(대한항공)의 목표는 올림픽 시상대에 다시 한 번 서는 것이다. 첫 관문은 무사통과다.

이승훈은 18일 서울 노원구 태릉국제스케이팅장에서 열린 SK텔레콤배 제5회 전국남녀 종목별 스피드 선수권 대회 남자 5000m에서 6분31초4로 1위를 차지했다.

2013년 자신이 수립한 6분31초21의 대회기록과 코스레코드를 0.17초 앞당긴 이승훈은 대한빙상경기연맹 규정에 따라 5000m, 1만m, 팀추월, 매스 스타트 부문 2017~2018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월드컵 1~4차 대회 출전권을 거머쥐었다.



월드컵에 나서는 선수들만 평창 올림픽 출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생애 세 번째 올림픽 출전을 위한 스타트는 산뜻한 셈이다.

30~31초대로 꾸준히 400m 구간을 소화하던 이승훈은 적절한 힘분배로 막판까지 힘을 쏟아냈다. 마지막 400m에서는 다시 30초대(30초73)를 찍었다.

이승훈은 “연습 때 몸 상태가 좋아서 기록 욕심을 냈는데 만족스럽다. (6분) 20초대가 목표였는데 후반에 부족했다. 그 부분만 보완하면 지금보다 훨씬 좋은 기록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훈은 앞선 두 차례 올림픽에서 모두 메달을 목에 걸었다. 2010년 밴쿠버 대회에서는 1만m 금메달과 5000m 은메달의 감동을 선사했고 3년 전 소치에서는 주형준(동두천시청), 김철민(강원도청)과 팀추월 은메달을 합작했다.

“올림픽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승훈은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올림픽이니 지난 올림픽보다 멋진 모습 보여주고 싶다”고

자오를 다졌다.

이승훈은 이어 “장거리 종목은 뛰니 체력적인 부분에 신경쓰고 있다. 팀추월과 매스 스타트에서는 반드시 메달을 따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승훈이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마칠 경우 평창에서 나설 수 있는 종목은 최대 4개가 된다. 내년이면 만 서른의 적지 않은 나이를 감안하면 무리가 따를 수도 있지만 이승훈은 되도록이면 모든 종목을 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승훈의 질주에는 일종의 책임감이 숨어있다. 본인이 뛰지 않으면 장거리 종목 출전 선수를 배출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현실을 이승훈은 잘 알고 있었다.

이승훈은 “내가 대표팀 장거리 종목에서 빠지면 5000m와 1만m에 뛸 선수는 딱히 없을 것 같다. 명맥을 이어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다”고 전했다. 물론 “평창에서 다시 한번 5000m과 1만m 시상대 서고 싶은 마음도 있다”고 웃었다.

프로야구 PO 3차전 명운, 두산 보우덴-NC 해커 어깨에 달렸다

오늘 각각 선발로 예고...1승 1패 균형 이뤘

코리아시리즈로 가는 중요한 길목에 두산과 NC의 두 외국인 선수가 격돌한다.

두산과 NC는 20일 오후 창원 마산구장에서 벌어질 2017 타이거뱅크 KBO리그 포스트시즌 플레이오프(5전3선승제) 3차전 선발로 각각 마이클 보우덴과 에릭 해커를 예고했다.

양팀은 2차전까지 1경기씩을 나눠가지며 1승 1패로 균형이 이룬 가운데 3차전 승부를 앞두고 있다.

2차전 대승을 거두며 시리즈를 원점으로 돌리는데 성공한 두산은 보우덴을 앞세워 시리즈 역전을 노린다.

지난해 18승 7패 평균자책점 3.80

으로 두산의 막강 선발 ‘핀타스틱’의 한축을 담당했던 보우덴은 올 시즌 17경기 출장에 그치며 3승 5패 평균자책점 4.64를 기록했다.

부상으로 전반기 4경기에만 등판했지만 후반기에는 몸상태를 회복하며 13경기에 출장했다. 9월부터 정규시즌 종료까지 5경기에서는 평균자책점 3.81로 작년 구위를 회복한 점이 고무적이다.

NC를 상대로는 1경기에 등판해 승패 없이 6이닝 7피안타(1피홈런) 3탈삼진 2실점했다. 작년에는 평균자책점 1.17로 강했다.

이에 맞서는 해커는 NC의 에이스다. 올 시즌 26경기서 12승 7패 평균자책점 3.42의 성적을 올렸다.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3차전 선발로 나서는 두산 베어스 마이클 보우덴(왼쪽)과 NC다이노스 에릭 해커.

롯데와 준플레이오프에서는 1차전과 5차전에 선발 등판, 13%이닝 1실점으로 호투하며 시리즈 MVP를 차지했다. 기세가 등등하다.

올 시즌 두산을 상대로 2경기

선발 등판해 1승 1패 평균자책점 2.77을 거뒀다. 지난해 한국시리즈 3차전에서 호투하고도 당한 패배를 설욕하기 위해 단단히 버티고 있다.

뉴스

정몽규 “최근 논란 이유 막론하고 죄송...신태용 신뢰”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축구대표팀의 거둬진 부진과 최근 불거진 협회 임직원들의 비위에 대해 공개 사과했다.

정 회장은 19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대표팀의 부진한 경기와 더불어 협회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대한축구협회는 거스 히딩크 전 감독 부임을 둘러싼 갈등까지 못한 일처리로 국민적 비난을 사고 있다. 이와 맞물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 역시 경

기력 저하로 집중 포화를 맞자 정 회장은 성난 여론을 달래기 위해 직접 전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정 회장은 “히딩크 감독 논란으로 상황이 악화된 것은 무척 안타깝다. 초기에 대응을 명확히 하지 못한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여야겠다. 하지만 그것이 이번 사태 본질을 덮을 수는 없다”고 전했다.

이어 정 회장은 “대표팀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나와 협회는 신태용 감독에게 변함없는 신뢰를 보내겠다”고 덧붙였다.

지역광고·이벤트·정문·지필

湖南新聞

전화 062)224-5800

팩스 062)222-5548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아제는 평창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 올림픽 2018. 02. 09~02. 25(17일간)
- 패럴림픽 2018. 03. 09~03. 18(10일간)

Pyongyang 2018 PyeongChang 2018